

감동의 드라마 ‘전남장애인체전’ 오늘 장성서 팡파르

내달 2일까지 사흘간…22개 시·군 1만5000명 21개 종목 경합
최초 야외 개회식 개최…박서진·곽영광 공연 등 볼거리 ‘다채’



지난해 영광군에서 열린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전남도 장애인 선수들의 화합의 대축제인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장성군 일원에서 열린다.

3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합치게!”는 구호로 22개 시·군 21개 경기단체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장애인 체전이다. 장성군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발족, 자원봉사자 운영과 안전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골볼, 론볼, 보치아 등 21개 종목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며, 전남 장애인들의 진정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회식이 진행된다.

30일 오후 3시 30분 장성군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회의의장, 김한중 장성군수,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임원 및 선수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개회식은 “화합의 바람”을 주제로 장성국악협회 농악 공연과 상무대 군악단의 연주로 시작한다. 공식행사는 ‘새시대, 새도약’을 주제로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인기가수 박서진, 곽영광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전남도 및 장성군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위라벨운동구장·장성실내수영장 등 경기장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수단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개회식 당일 안전요원과 교통통제 요원을 배치해 인파 분산 및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특히 장애인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1열 좌석 앞에 휠체어 우선 공간을 마련하고 환영리셉션 장소와 개회식 무대를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회기간에는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앞에서 선수

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한궁) 체험부스, 스포츠재활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등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내 헌전, 포스코, 쿠방 등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장성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회식은 5월 2일 오후 1시 흥길동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종합시상을 비롯한 최우수선수단상, 모범선수단상, 성취상 등을 수여하고 차기 대회 개최지인 구례군에 대회가 전달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광주 출신 손현호, 역도 81kg급 용상 ‘한국신기록’

문곡서상천배서 205kg 번쩍
인상·용상·합계 등 ‘3관왕’
7월 광주시청 역도팀 복귀

광주 출신 손현호(국군체육부대)가 역도 남자 81kg급 용상 한국 신기록 달성과 함께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손현호는 지난 28일 강원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제84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남자 81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205kg, 합계 355kg을 들어 합계 320kg(인상 140kg·용상 180kg)의 박주호(고양시청)를 제치고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인상 1차 시도에서 150kg을 든 뒤 2차와 3차에서 160kg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용상에서는 1차 시도 195kg에 성공했고, 2차 시도에서 205kg을 들어 올랐다. 3차 시도에선 5kg을 추가해 210kg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로써 손현호는 남자 81kg급 합계 355kg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날 손현호가 용상에서 든 205kg은 한국 신기록이다.

국제역도연맹(IWF)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고 세계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 한국 기준기록표를 작성했고, 남자 81kg급 한국 기준기록을 인상 163kg, 용상 204kg, 합계 365kg으로 정했다.

그동안 3개 부문 모두 기준기록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날 손현호가 용상에서 기준 기록을 1kg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2013년 송정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역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현호는 한국 역도계의 기대주다.

중학교 재학 시절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2kg급 인상 2위(102kg), 용상 1위



손현호는 지난 28일 강원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제84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남자 81kg급 용상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133kg), 합계 1위(235kg)로 2관왕과 동시에 용상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았다.

이듬해 정광고등학교로 진학한 그는 체급을 69kg으로 올린 뒤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상 125kg, 용상 150kg으로 합계 2위(275kg)에 이름을 올렸다.

근력에 강점이 있었던 손현호는 이후 체급을 77kg으로 다시 올린 뒤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용상 1위(169kg), 인상 2위(134kg), 합계 1위(303kg)로 2관왕에 올랐다.

그는 다음 대회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마저 점령(인상 2위·용상 1위·합계 1위)하며 마지막

고등부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19년 광주시청에 입단한 후에는 지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인상 2위(152kg), 용상 1위(189kg), 합계 1위(341kg)로 2관왕을 차지, 생애 첫 전국체전 일반부 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군 복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역도 남자 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2위(153kg), 용상 1위(198kg·대회 신기록), 합계 1위(351kg·대회 신기록)로 2관왕에 올랐다.

손현호는 오는 7월 광주시청 역도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소망 나주시청 육상팀 선수(오른쪽 두번째)가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 800m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나주시청 신소망, 국가대표 선발전 800m 우승

내달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출전권 획득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청 육상팀 신소망 선수가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 8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소망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5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1973년 최초로 개최된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로, 아시아 최정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아 육상인의 축제의 장이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신소망 선수는

800m 종목 국내 최강자를 뛰어넘어 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도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나주시의 위상을 드높인 신소망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5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선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소망 선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는 ‘제29회 KTFL 전국 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 800m, 1500m 종목에 참가한다.

나주=조현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8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이용범 파크골프협회장 등 1500만원

광주시체육회가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8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광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시체육회에 전달한 성금 1500만원은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과 파크골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

속한 복구를 위해 파크골프인들도 함께 하자는 뜻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다.

시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에서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경북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성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민들에게 전달된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파크골프인들을 비롯한 광주체육인들이 모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지친 영남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메이저 준우승 김효주, 여자 골프 세계 랭킹 ‘7위’

지난주 13위서 6계단 상승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김효주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7위에 올랐다.

28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에서 끝난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김효주는 지난주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가 됐다.

또 이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오른 고진영은 지난주 11위에서 8위로 올랐다.

이로써 지난주 세계 랭킹에서 10위 안에 한 명도 없었던 한국 선수는 김효주와 고진영의 약진으로

다시 2명으로 늘었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10위 내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은 2006년 6월 이후 지난주가 거의 19년 만이었다.

넬리 코르다(미국), 지노 티파코(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변함 없이 1~3위를 지켰고, 인뤄닝(중국)이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이고 마오(일본)가 37위에서 13위로 경천 뒤편었다.

27일 충북 충주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민선은 161위에서 112위로 도약했다.

연합뉴스

